



## 허리케인 '카트리나' 세계해운시장에 변수로 작용

지난 8월29일 미국 남부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미 역사상 최대 자연재해로 기록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해운시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카트리나'가 해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신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중동 산유국의 정정 불안에다 카트리나 피해까지 겹치면서 석유 수급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제 에너지기구는 전세계적 에너지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데 허리케인 시즌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등 향후 세계해운시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석유제품선 운임 급격히 상승

특히, 유럽-미국간 석유제품선(product tanker)

의 9월5일자 운임은 WS 425로 지난 주말부터 55 포인트 상승했다. 미국 남부를 덮친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여파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으로 향하는 석유제품선의 증가로 석유제품선 시황은 일제히 상승했으며, 아시아 방면에서도 통상운임보다 30% 정도 높은 WS 300을 돌파했다.

유럽-미국간에 배선되는 석유제품선은 3만 5,000-4만5,000DWT급의 MR형(Medium Range)으로 불리는 선형이다. 시장관계자에 의하면, 동 항로에서의 MR형의 거래는 시세가격으로





WS 450에 이르러, 운항비의 2배 가까운 고가의 성약이 나오는 등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WS 450은 선복수급을 나타내는 용선료로 일당 4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 ▶ 미국향 석유제품선 수요 급증

이처럼 운임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향 석유제품선의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아시아나 중동 방향의 석유제품선 시황도 일제히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 산유국 방면으로 배선되는 LR(Large Range)로 불리는 5만DWT급 이상의 대형선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동-일본간에서 WS 265로 지난해 대비 8% 상승하여, LR형에서는 수요가 높은 유럽-미국간에 배선을 이동시키는 움직임도 있다.

석유제품선은 일본에서는 MOL이 MR형만으로 20척 이상을 운항하고 있으며, NYK도 이 선형의 선박을 운항중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회원국 26개국을 대상으로 가솔린 등 석유 제품류를 석유전략비축으로부터 일당 200만배럴(27만톤)을 60일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석유제품의 수입급증과 수반하여, 해외 선적의 국내간수송을 제한하는 존스법(Jones Act)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미국 선적 이외의 선박의 운

항을 허가할 방침이다.

미국의 석유 소비지간을 묶는 항로는 거리도 길고, 각국으로부터의 전략 비축도 함께 선복수요를 높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구나, 정유소의 가동정지 기간이 장기화되면 석유제품선의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 ▶ 에너지자원 수송분야에 영향 지대

사실상 미국 남부를 직격한 초대형 허리케인이 원유 석유제품, 곡물 등 에너지자원 수송 분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전역의 석유정제능력의 10%에 해당하는 생산시설이 정지되고, 유럽으로부터의 가솔린 수입이 급증하여 석유제품선 시황은 급격히 상승한 반면, 곡물 및 원유 수송은 체선이나 파이프라인의 일부 고장으로 수송량이 둔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해운선사들은 '시황에 미치는 영향은 미지수'라고 하고 있지만, 복구 작업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수송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번 허리케인 영향으로 석유제품선 시황이 급등하고 있는 주된 요인은 멕시코만에 있는 유럽·미국의 대형 정유소들이 피해로 조업을 일시 중단함으로써 석유공급 부족분을 수입으로 보충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실세 환율보다 선물 시장에서의 성약 운임이 강세로 움직이고 있다.

현재, 허리케인의 피해로 엑슨모빌, 셰브론 텍사코 등 남부의 대형 정유사 등이 정제작업을 중단, 불가동분은 200만배럴/일로 이는 미국 전체 처리능력의 10%이다. 베네수엘라 등 카리브해에서의 공급도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에 일극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석유제품선 실무담당자는 전망하고 있다.

## ▶ 미 곡창지대 침수로 곡물수송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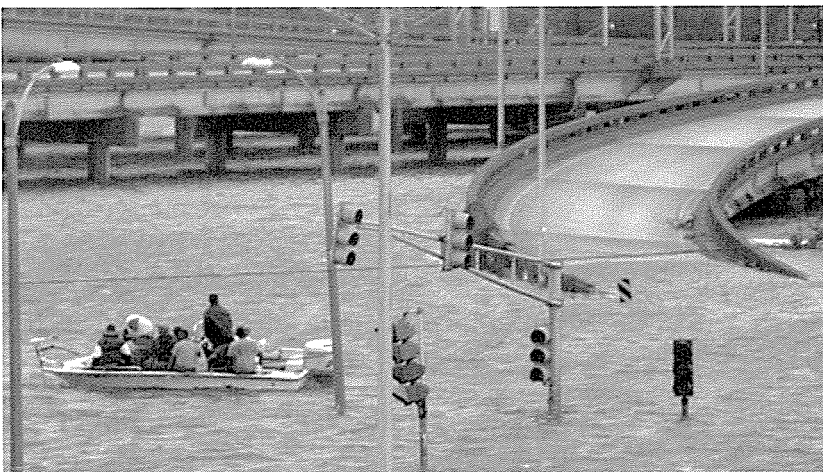
곡물 수송에서는 미국산 곡물의 70%를 출하하는 미시시피강 유역에서 해상운송이 재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기선시장에서의 성약이 거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표가 되는 미국 멕시코만-극동간 곡물 운임은 톤당 36 달러로 지난주부터 제자리걸음이다. 그러나 부정기선사 담당자에 의하면 성약이 없기 때문에 운임이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실제로는 '체선'으로 인해 선물시장의 거래 수준은 약세를 띠고 있다고 한다.

곡물의 하역시설 자체에 피해는 없는 것 같지만 도시 기능이 계속 마비되고 있다면, 해상운송만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 피해가 장기화되면 철도로 북미 서안까지 대체 수송하여 해상운송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원유 수송도 곡물 수송과 같이 미국 기점의 화물의 이동은 둔화될 전망이다. 루이지애나주 남서 약 25km바다의 원유 하역기지 루이지애나 오프쇼어 포트(LOOP)는 하역시설 자체에 피해는 없지만, 파이프라인의 일부에 장애가 발생했다.

## ▶ VLCC 선복수요 일시적 감소우려



파이프라인이 복구되어도 제유소가 가동하지 않으면 원유 자체의 수요가 둔화하기 때문에, 대형유조선(VLCC)의 선복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주력인 중동-극동간의 VLCC시황은 WS 65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있지만, 미국 배선의 감소로 향후 조금 하락할 우려도 있다.

한편, 대형 허리케인 피해로부터의 복구가 시작되고 있는 미국 뉴올리언스항의 게리 라그랜지(Gary Lagrange) 최고경영책임자(CEO)는 9월7일, 화물선의 기항은 9월14일까지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처음은 메인 터미널에 있는 2-3 선석의 개시를 목표로 하여 최신 설비가 많은 나폴레옹 컨테이너 터미널이나 낫슈빌터미널은 빠른 단계에서의 오픈이 기대되고 있다.

항만국의 건물은 자가발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벌써 전력을 확보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신식 설비가 많은 나폴레옹 컨테이너 터미널과 내슈빌 터미널의 개장을 기대하고 있다.

## ▶ 뉴올리언스항 9월14일 재개목표

터미널의 현재 상태로서는 P&O터미널과 세레스가 운영하는 터미널에서는 전력공급이 최대의 관건이 되고 있다. APM터미널즈가 운영하는 프랑스로드 컨테이너터미널은 호수로부터의 수로와 약간 좁은 지류가 교차하고 있는 장소에 있어, 강바닥에 토사가 퇴적되는 등 침수가 있었다. 이 때문에 복구에는 한층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